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민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교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인: 김성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자원봉사는 감사의 통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빌립보서 3:3)

주일오후 선교관 뒤편에 마련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녹색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중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충헌의 성도라면 모두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냄비 나는 음식 쓰레기통을 운반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있거나 하면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쉬고 싶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충헌기도와 충헌 동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회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자신의 안락과 세련된 종교인의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고후 9:12) 봉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으면 됩니다.(갈 2:20) 본당 1층의 자원봉사부(☎ 4210) 오십시오. 지금 믿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

주제 : 두 세계(요한복음 18:36)

일시 : 6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6월 교회 일정

- 1일(주) 제1교육위원회의 교사강습회(12:10)
- 11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4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 20일(금) 제2차 청지기훈련(금요찬양집회 시)
- 22일(주)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바쁜 것과 황량함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임하여 주셨고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셨다.(엡 3:17-19) 불안한 결혼생활을 잡아주셨고, 아파로서의 기쁨도 체험하게 하셨다. 이제는 성공을 좇아 헤매는 자가 아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이 되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삶이 몇 년이나 지나갔을까? 지나간 2, 3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현실을 바라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삶은 야망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준행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영적 수레바퀴를 미친 듯이 도는 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세미나 혹은 서점을 가웃거리며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찾으려 한다. 이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려는 간절함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이 배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고후 4:18)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며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봉사활동으로 채워버리게 된다. 방법론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교회지도자들은 건강할 육체와 세상적인 지혜와 변화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워할 것이다.(갈 4:9-11 ; 골 2:8,20-23)

과연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생을 스스로 노력하고 모든 면에서 엄격하고 근실하게 산 60대 중반의 한 사업가가 있다. 어느 날 저녁예배를 드리는 중에 수년 간 강단에서 내려지는 복음 안에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복음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했다. 능력 있는 사업가의 신앙고백을 들은 목사님은 기뻐하며 봉사를 권유하였다. 이때 그는 대답했다. "목사님, 제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우리를 역시 예수님과 관계는 있어 버린 채 바쁜 교회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대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삶은 영적 활동을 점점 절망 속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것과 노력하게 된다. 마치 날씨가 허우적거리며 마르는 자의 모습이다.(골 7:24) 우리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후 4:2-6) 진정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존재하며 믿음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한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여 보자. 공포와 죄의식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다. 이들은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갈 3:1-3) 여러 교회를 찾아 헤매다. 여러 목사님들과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현대문화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지만 자신을 묶어 놓고 있는 공포와 죄의식은 여전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공포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갈 5:1)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골 1:22-23)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요 19:30)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골 1:19-20) 그러나 인간은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믿어서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한다. 결론으로는 늘 웃으며 존경받는 교회생활을 감당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이러한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공포와 두려움, 또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지만 오히려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다문 채 혼자 삭인다. 자신에게 물어 보자. 성경의 권리를 망각인가? 영생인가? 은총인가? 아니면 윤리와 율법인가? 육체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생각하며 얻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한 적이 있는가? 지옥과 천국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은 있는가?(삼후 1:8-9) 아니면 모든 것이 관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그리스도인의 종성한 삶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정신없이 시간, 돈, 정성을 바치며 무덤은 우리들의 삶에 황량함이 찾아오고 있다. 참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14:1-4, 16:1,33) 야만.

HOW WILL WE ESCAPE?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After it was at the first spoken through the Lord,
it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Hebrews 2:3)*

There are some questions that there are just no answers to. For example, if I ask you how can one number the days of eternity or how can one measure a bottomless pit; you cannot give a definite answer. The same holds true concerning the question asked in today's Bible verse from Hebrews 2:3,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There is no escape! You have been given a wonderful gift and a tremendous opportunity, but if you do not take it seriously you will face an irreversible consequence. You have the Bible, the Holy Spirit, and the servants of God at hand to hear, but you prefer to only listen to what you want. You like meetings on wealth, books about success, entertainment programs, and discussions among colleagues/friends concerning reputation and status. 1 Thessalonians 5:2-3 says, "For you yourselves know full well tha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just like a thief in the night. While they are saying, 'Peace and safety!' then destruction will come upon them suddenly like labor pains upon a woman with child, and they will not escape." The Lord God says, "Behold I am bringing disaster on them which they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ough they will cry to Me, yet I will not listen to them." (Jer. 11:11) Salvation is a very serious matter. I honestly do not know of anything more important. Why are you neglecting it?

Salvation is all about deliverance and safety. You need to think about real salvation. You cannot take it seriously if you do not think about it! Today's Bible verse describes salvation as "great." I know that you take money and enjoyment quite seriously, so why are you not giving your attention to salvation? Your money and various pleasures will not follow you after death. This earthly life is only temporary; the life that follows is eternal. Salvation is deliverance from the penalty of sin. Without salvation, hell and judgment loom ahead and every moment of your life moves closer to destruction. Romans 3: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You have sinned and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No one with sin can go to God. In other words, without Jesus, who cleanses all sin, you have to go to hell. Salvation is about saving you from hell.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 takes place in heaven, which is safe. Eternal death takes place in hell, which is not saf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be forever safe.

Salvation is great. Jesus, the Son of God, died on a cross in

payment of your sin. His death satisfied the holy demands of God. (Rom. 3:25) The price Jesus paid for your salvation was great. The fact that all people who place their faith in Jesus will be saved is also great. Even the simplicity of the message is great! The Holy Spirit's indwelling is great, having a changed life is great, and the fellowship of the saved is great. Moreover, the faithfulness of Jesus is great. The fact that this is the one permanent thing in life is great. Receiving a resurrected body that will be like Jesus' is great, "Just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earthy, we wi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1Cor. 15:49) Eternal life is great. Everything about heaven is great!

Can you escape from neglecting such a great salvation? I will tell you clearly that there is no escape. Even God does not know of an escape plan for anyone who neglects their salvation. The tragedy of life's missed opportunities in education, family matters, job careers, property management, and the like is sad, but can you even imagine the regret of standing before your Creator God on judgment day with the knowledge that you neglected your salvation? Seriously, can you imagine your shame of making other matters more important than salvation? Your guilt of the past and your fear of the future will not stop you from being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Rev. 20:15) Salvation is the only means by which your name can b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Jesus decla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Salvation comes by no others means than Jesus Christ. He is our only connection to God. Without Him, you and I have absolutely no hope. With Him, you and I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Without Him, you and I cannot avoid eternal damnation. With Him, you and I can enter the gates of heaven and live forever.

My dear friend, right now a great escape is available. If you confess your sins to Jesus Christ and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He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change you. He will make you a child of God.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will write your name in the Lamb's book of life. If you continue to neglect your great salvation, and Christ returns or you die in your sins, you will live in hell forever. There is no escape from this punishment after death. Remember that no one is promised tomorrow. Death or Jesus Christ's return can come at any time. Please wake-up and get serious about your salvation. What can possibly be more important? It is literally a matter of eternal life and death. Amen.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3)



김성완 목사

어떤 질문들은 딱히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영원'을 날짜로 환산한다면 며칠쯤 되는지, 또 끝도 안 보이는 구원의 깊이가 얼마쯤 되는지를 묻는다면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3에 나온 질문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놀라운 은사와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성경과 성령, 그리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제테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공에 관한 책을 읽으며,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고,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2~3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임이다"(렐 11:11) 구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실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것을 등한시하시니까?

구원은 해방과 안전에 관한 것이다

구원은 해방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구원에 대해 "왜"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이나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 가지 쾌락들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의 그림자가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순간적인 멸망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23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롬 6:23) 죄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없이는 자식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속한 것이고 지옥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구원은 위대하다

구원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충족시켰

습니다.(롬 3:25)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진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단순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변화된 삶, 구원받은 자들과의 교제 역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역시 경이롭습니다. 이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 영원한 생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고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구원을 경호하 여긴 자들이 보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교육이나 가정 문제, 취업, 재테크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후회와 비통함이 어떠한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구원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신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꽃에 던져지리라"(계 20:15) 구원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과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삶이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나의 문제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5. 21.)

믿음의 길

(창세기 15:1~7)



12:1~3)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람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람이 특별한 준비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의 가정은 우람을 만들고 섬기던 가정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고 이 말씀에 아브람은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 자존심을 버렸다. 아브람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당신의 가족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는가?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아브람과 가족의 믿음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믿음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은 질문하였다. "주여 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가 이 대역사 사람 엘리엘이니이다"(창 15:2) 아브람은 자신의 씨를 통하여 자손이 번성할 거래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창 15:3) 아브람 자신은 물론 아내 사래도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노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지대로 재해석하여 엘리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또한 사래도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가지로 떨어뜨리는 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것들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노력을 가미하여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리고 이성과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판단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마치 "오병이여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나?"는 안드레처럼 말이다.(요 6:9)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그리고 가정에 있다.(창 7:1; 행 16:31)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가족이어야 한다.(마 1:1; 갈 3:16)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은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인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미래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들, 가족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순간 흔들린다. 아브라함처럼 말이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상기시키셨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낳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라 못볼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4-5) 이 언약의 말씀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되기도 하였다.(출 32:13)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자 하신다.(마 11:28)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짐을 예수님께 내어 놓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신이 하려고 노력한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성이 숨어있다. 회개하자. 단순히 자신이 범한 몇 가지 잘못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자.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자. 비록 참기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자.(히 6:13~15)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은 오직 주님뿐이시다.(히 11:10)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다 우리에게 전설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창 15:6~7) 믿음만이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영광보다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다.(롬 3:25) 우리의 신앙심,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 이것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한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열약한 현실은 믿음의 길을 걷는 그와 가족의 믿음을 흔들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앞세우려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며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롬 4:3~5)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꾸만 자신의 실력, 노력과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자.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믿음의 가족이 되길 기도하자.(왕상 18장; 왕하 20:10~11)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찬 440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 대환 할로새기기도(사백 446)에 생생한 믿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장의 비유

(4:26~29)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이 씨를 땅에 뿌리고 갈으니라"(마 4:26) 예수님은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은 매우 쉽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마 28:10~27) 단지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된다.(마 10:7,22)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노력 없이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외식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은총의 밭을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다. 멸망을 앞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사건은 요나의 선전과도 열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요나는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기를 원했다.(온 4:1)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했을 뿐이었다.(온 3:4) 요나는 '실마 그들이 회개할까?'라고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셨다.(온 3:10)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마 16:15)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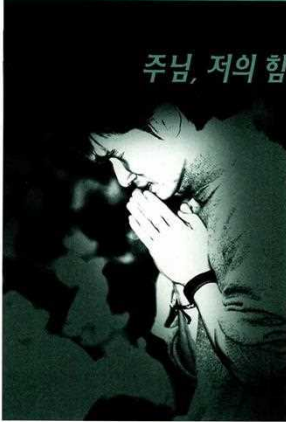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 씨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4:27) 믿음으로 뿌리진 씨를 자라게 하지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라게 하려고 발버둥친다. 결국 인간적 열정은 외식을 가져온다. 씨가 자라는 것은 영적 신비이다.(딤후 3:16) 하늘의 해는 우리의 노력 하에 관계없이 씨가 나고 자란다.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다.(요 1:12~13) 믿는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은 전해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구'가 아닌 '회개'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야만 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마 4:28)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요, 마침내 낱알이 여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이다. 곧 믿음을 통한 역사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의 할 일은 매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고후 9:10) 믿음을 잃고 십자가를 붙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매순간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환안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마 4:29) 추수의 때가 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 씨가 잘 열매이니? 아니면 영생의 열매인가?(갈 6:8~9)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붙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사 55:11)

주님은 죄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것뿐이다! 주님이 성장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없다. 단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과 복음전도의이여야 한다.(계 14:13)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직도 믿을 것이 아닌 자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 보려고 배우고 노력 중인가?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는가? 진실로 회개하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찬 191장) 아멘.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개월여의 선교교원 기간 동안 선교지에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며, 외국인의 직접선교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많은 팀들이 파송되어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선교가 통제되어 있어도 큰 문제없이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 말로만 들던 상황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선교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을 돌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3명씩 한 조를 이루어 한 지역에 30~40분씩, 조금 안전한 지역에선 50분 정도 머물면서 축복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두세 가정 정도 방문할 수 있는데, 낮 시간에는 거의 한 집안에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예전에 근처 나라에서 사역할 때에는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게다가 선교초반부에는 우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번은 이동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전도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당하게 대할 수 있었고, 특히 권사님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관광객인 양하며 그들을 따돌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추방이 되었을 겁니다. 이후 저희들은 함께 기도한 끝에 전도지 대신 25개의 전도문장을 위문한 것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서너 차례 경찰들을 만났고, 한번은 7명의 경찰이 저희 팀원 몇몇을 에워싸서 증거물을 찾으려 하였지만 저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역기간 중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지 없이 외운 문장만으로는 현지인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번은 이동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전도문을 가져와서 읽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자매 앞에서 대박이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영혼에게 틀을 깨워주소서!"라고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모르셨던 자매가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령의 임재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함께 계셨고, 거의 매일 200~300km를 다니면서 차 속에서 사탄을 대적하는 찬양을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사역지역 가는 길에 어떤 강변에서 잠시 내려 금요찬양집회 때 배운 **(바벨론)**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교회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많은 기도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5월 19일(월)~5월 27일(화)	13교구 5지역	조종연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5월 26일(월)~6월 4일(수)	16교구 1지역	김정현
5월 29일(목)~6월 7일(토)	21교구 5지역	양승복

강여경(집사, 4교구 2지역팀)

전도의 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전도가 아닌가 싶다.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남전도회 총력 교회주변 전도 때마다 나는 전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차라리 새벽기도를, 금식기도를, 아니 성경 통독을 하라 하면 나 혼자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는 늘 내 신앙생활의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부분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에는 무언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 불신자 앞에만 서면 나는 늘 작아진다. 머릿속에 많은 신앙적 내용과 정보가 들어 있어도 막상 불신자와 마주하면 조용히 그저 "교회 다녀세요, 이 전도지 한 장 받아주세요"가 전부이다.

전도를 나갈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 이렇게 힘든 전도를 시키시는 걸까? 전지를 만드는 하나님인데 많은 한 마디만 하셔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텐데....., 주님은 나에게 굳이 이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매일 전도지를 들고 나갈 때마다 전도는 참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그것은 앞서서 주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다. '노아도 이렇게 전도는 참 힘들었겠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울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파셨을까?'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과 조롱,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이 전도의 길에 서 계셨던 것이다.

전도지를 들고 교회주변을 걷노라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느낀다. 매통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를 받아가지 버리는 사람들, 무언가 복음을 전하러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나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을 배운다. 겸손을 배운다. 그리고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체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전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평생 갈아도 못 다 갈은 은혜의 빛이 너무 크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지를 들고 역삼동 길을 나선다.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닌가!

박형직(집사, 19교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유년부



이상재(장로, 유년부장)

유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에 순종하며 영적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며, 오전 11시부터 새친구 환영과 등반, 생일축하 및 100% 출석반을 축하한 뒤 11시 30분부터 신생년부의 만남으로 분반공부가 시작됩니다. 유년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믿음, 소망과, 2학년을 사랑, 진리과, 신일생을 열매과로 구분하여 220명의 학생과 50명의 선생님을 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고 유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골 1:13)

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수업, 성경암송과 찬송부르기 대회와 성경이야기 및 성경쓰기 대회, 새친구초청 전도집회 등 유년부 학생들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간치가 열립니다. 가끔 분반공부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가 있어 야단도 치지만 그 날 배운 말씀을 물어보면 대답을 척척 잘한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특히 유년부에서는 복음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전도를 하기 위하여 유년부 학생들로 구성된 전도복공대를 세워 훈련시키고 격주 토요일마다 각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행 13:44)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는 누구나 유년부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년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유년부(제1교육과 307호)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선생님들은 항상 기뻐하며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년부의 기도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걷는 유년부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월마다 복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령으로 양육하는 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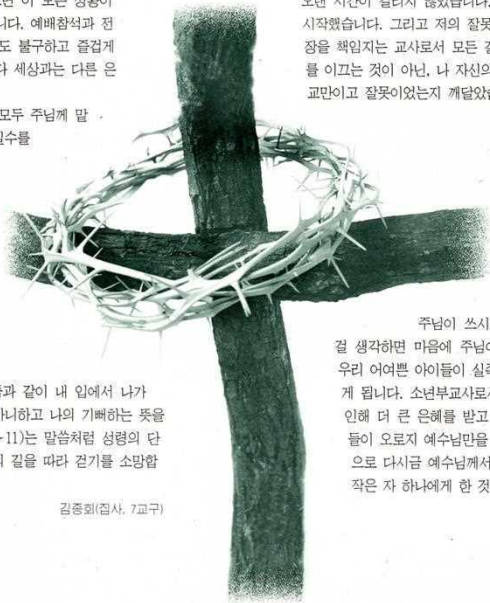
십자가의 길을 따라

교회 가정자리에서만 머물러 소극적인 믿음에 갇혀있던 제가 처음 구역장 임명을 받았을 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식구들을 돌보아야 하며, 구역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전하는 것들을 구역식구들에게 잘 전달하고, 모든 면에서 적극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은 믿을 없는 저의 연약한 모습일 뿐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초 구역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불꽃같은 믿음으로 끓은 시절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저의 모습을 비교할 때마다 저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연약한 저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배참석과 전도를 위하여 불편한 육신과 어려운 집안형편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역식구들을 대할 때마다 세상과는 다른 은혜와 믿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세상 모든 걱정, 불만과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겨 놓고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때면 실수를 반복하던 저를 기다려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저의 죄를 일깨워 주셨기에 이제 저의 삶은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을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씨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9~11)는 말씀처럼 성령의 단비와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기를 소망합니다.

김종희(집사, 7교구)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기도하라!

세상의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사후세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세상 것에만 온 힘을 쏟고 사는 이welt 친구가 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죽을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전하면 친구는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려서든 자로 여기는 그 친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였다. 여전히 그 친구는 무반응이다.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그 친구가 참으로 불쌍해 보였다. 지옥 불에 빠져 고통 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이웃친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았다. 그렇다. 생명을 건져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내내로써 아뢰면,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웃친구와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목록의 중심에 있다. 지속적으로 그 친구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믿음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 아멘.

김영희(집사, 21교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저는 소년부에서 예배와 2부 순서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에 묻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계속 뿌리치고 세상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모든 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사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저희 결혼식을 축하해 주신 분들과 차례로 감사인사를 드리러 다니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소년부에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기에 무조건 열심하면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이를 이끄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배와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영상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준비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양성부 교육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 이렇게 소년부교사라는 큰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소년부교사로서의 교만이 아닌 저 같은 죄인이 우리 아이들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고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동현(교사, 소년부)

고난의 십자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는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과 멸시와 수치로 다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오 예수여!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이것은 얼마누래 천양대가 성탄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 밖에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찬양을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울고 또 울며 몸부림쳤습니다. 몇 시간을 회개하면서도 이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죄와 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이같이 간절히 울부짖는 나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세우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 뿌리가 빠지게 하시고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단비가 되어 내 영혼을 적셔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된 보며 불쌍하던 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중수(집사, 8교구)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남동생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릴 수 없어 교회에 한번만 나가고 싶었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명상에 관한 이야기만 여기서가 다니면서 나 자신은 해탈해 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던 터라 교회에 한 번쯤 나가도 마음의 동요는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런 일인지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일들이 생겨 연달아 교회에 나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나쁜 생각이었습니

다. 오랜 시간 명상에서 얻지 못한 해탈과 같은 상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도 있겠다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고백하는 가운데 교만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남동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주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수요일성경공부, 전도대원훈련, 금요찬양집회, 주일예배, 새가족양육부, 구역예배,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기도원월야집회에도 몇 번 갔습니다. 동반자가 없으면 혼자라도 다녔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제 기도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더러운 사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전 세계 인구 중 겨우 6%가 기독교인이라는 방송을 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복음전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자 저는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경을 다 알지 못하므로 전도지는 자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날 지나쳤다가 돌아와서 "아니 어떤 뉘 봐요,"하며 손을 내미는 분을 만날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외쳤습

니다. 병답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연결기는 저런 분들이 더 열심히 믿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제목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니 그날까지 온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충만한 제 자신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성령충만한이 덜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충만한 교회에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정영민(성도, 새가족양육부)

복음에 기초한 친(親)환경적 삶 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는 말씀처럼 창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범죄로 인하여 만물은 창조 시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였습니다. 나아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은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나무와 행인 같은 신체의 삶에서 이 땅의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이랄까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요 3:16)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포함한 '세상' 전체를 깨닫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롬 8:2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함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담의 죄를 속량(달 2:14)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창 3:8), 인간과 인간(창 4:8), 인간과 자연(창 3:17) 간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무차별로 파괴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인간을 위한 물질로 인식하고 무절제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구본위주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며 인간은 피조물로 불과하다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참 믿음과 과단한 소비를 줄이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물 속에서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찾는 영적 눈을 머친환경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마 20:33) 친환경적 삶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의 한 시도는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기소비를 30%까지 줄이며 친(親)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전체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친환경적 삶을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친환경적 삶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 하십시오.(마 16:24) 교회가 단순히 전기료를 아끼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친환경적 삶을 살아 갈 때 우리 교회는 복음전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 삶은 복음에 기초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보배로운 피(베전 1:19)로 모든 성도님들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꾸마다 모두 죄 뿐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주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나의 열심, 나의 의와 생각으로 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어둠에 젖혔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 드렸는지..... 저는 주님 앞에 모두 죄범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수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주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 때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무지로 주님과 교제하며 대하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끝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옵나니."**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넓은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죄를 지어서 온전히 어떤 죄인인가에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을 살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작년 12월 천정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맺어주신 사랑에 사실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권민호(집사, 호신나 전양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Table with 4 columns: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It lists names and church affiliations for a welcome group.

* 초헌교인의 만가기가 더욱이 환영하는 것은 본연 203호 새가족 등록목회 소지가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남·녀 전도회 회장 월례회
일시: 25일(월) 15:10
장소: 1기화~4기화, 2기화~409호
3기화~405호, 4기화~410호

결혼

1. 전지훈 군(전영석 박·박은혜 씨의 아들, 마교)과 정주영 양(정영철 장남·김진희 씨의 딸, 6교구) / 31일(수) 15:00, 송파대림동원회 6층

별세

1. 김진철 성도(오인수 성도의 남편, 장태호 집사의 부친, 장순태 집사의 사부, 10교구 덕소2구역) / 16일 밤세, 19일 영결

충원복지란 사무국 모집

1. 모집부서 사무국장 (1958년 이후 출생자)
2. 자격 제2회공무원 시험자 1급 자격을 소지하고, 8급만 제외 80여명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력서(사내인사팀), 추천서(동원회, 10교구에서 지명된 담임목사 추천서(2008년 4월 20일까지), 성적증명서, 4. 제출서류 2008년 6월 11일(수) 17:00까지
5. 서취제출처 서촌사 강남구 역삼동 665-1 #552-8200# 401

충원복지란 직원(교회목사) 모집

1. 모집부서 교육지원(교회)
2. 자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